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4. 4. 21. Vol. 16

■ 농정이슈

과수농가, 개화 시기 빨라져 피해 발생

■ 정책브리핑

농식품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 연구지원

201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금주의 핫 이슈

〈과수농가, 개화 시기 빨라져 피해 발생〉

- **[과수 이른 개화로 인공수분 농작업 차질]** 봄철 이상고온으로 과수 꽃 피는 시기가 평년보다 최대 15일 빨라져 개화시기에 인공수분을 비롯한 농작업 차질
 - ※ 과수 개화기 때 수분이 제대로 안되면 결실률 및 품질 저하 초래
- **(저온서리 피해)** 개화시기가 앞당겨지면 꽃이 피어 있는 동안 일시적인 저온서리로 인한 피해 발생, 특히 중부지역 배꽃은 냉해 심각
 - ※ (사과 복숭아) 배에 건취 피해가 덜한 편이지만 개화 진행하면서 문제 발생 가능성 내재
 - ※ 농작물 저온피해 현황(농가 피해신고 기준, 4.11일 현재): 배·사과·복숭아·매실 등 4,002ha
- **[대비책]** 기상이변으로 인해 안정적인 결실량 확보 위해 인공수분 농가 증가 예상됨에 따라 꽃가루 사전 준비 필요
 - ※ 정부, 농작물재해보험 미가입 농가 위한 농약대(ha당 47만 원)·생계지원비(가구당 85만 원) 등 재해복구비와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지원 검토 중
- **[농업재해보험 가입 당부]**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 발생 증가 예상됨에 따라 농업재해보험 적극 가입해 재해 대비
 - ※ 어김없이 발생한 봄 동상해로 과수 농가 피해 예상되나, 과수 보험의 봄 동상해 특약 가입률은 전체 가입면적의 18.4%수준에 불과
 - ※ 과수보험 봄 동상해 피해 접수 현황(4.11일 기준): 1,981건, 1,315ha
- **[기상청, (4월 하순~5월 중순) 전망]** 주기적인 날씨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고온현상 발생 예상
 - ※ (4월 하순-이동성 고기압·저기압 주기적 영향) 상층 한기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쌀쌀한 날씨 보일 때가 있어 기온 변화 크고, 평년대비 기온·강수량 비수
 - ※ (5월 상순-이동성 고기압 영향) 맑고 건조한 날 많고, 평년대비 기온↑·강수량↓
 - ※ (5월 중순-이동성 고기압·저기압 주기적 영향)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기류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기온 급상승, 평년대비 기온↑·강수량 비수

자료 : 농민신문·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정신문(2014.4.14.) / 원예산업신문(2014.4.16.) / 한국농업신문(2014.4.18.)

참고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소식_「과수 꽃 피는 시기 빨라져, 농사 준비 서둘러야」(2014.4.3.), 기상청 보도자료_「1개월 전망 (2014년 4월 하순~5월 중순)」(2014.4.14.),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업재해보험, 과수 농가 재해 버팀목으로 자리잡아」 - 「'14년 과수 5종 재해보험 가입대상 면적 대비 50.5% 가입, 사과는 89.3% -」(2014.4.16.)

한·미 FTA 원산지 규정 마찰

- **[관세청, 미국산 오렌지 농축액 원산지 규정 위반 조사]** 국내 오렌지 주스에 들어가는 미국산 농축액 원산지 규정 위반 단서 포착, '13.6월부터 고강도 조사 중
 - ※ (협정문) 과실 조제품은 미국에서 100% 생산된 것만 원산지를 미국으로 면세 표기하도록 규정했으나 미국업체 4곳이 다른 국가로부터 농축액 수입·가공
- **(한미 통상 마찰 비화 조짐)** 미국 정부 반발, 한·미 FTA 원산지 규정 둘러싼 문제가 통상 마찰로 비화할 조짐 보이는 상황
 - ※ 대부분 미국에서 들어오는 오렌지 농축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2년간 수백억 원 수입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4.25~26일)**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를 포함한 한·미 FTA의 지속적 이행 문제 논의 예정

자료 : 농업인신문·연합뉴스·중앙뉴스(2014.4.14.) / 경향신문·국민일보·아주경제·한국일보(2014.4.15.)

참조 : 청와대 뉴스_「오바마 대통령, 4.25-26 한국 방문 예정」(2014.4.15.)

미국, 브라질 오렌지 수확 감소 전망

- **[미국 플로리다 오렌지 생산량, 역대 최고치('69~'70년)대비 31% 감소 전망*]** 플로리다 '13~'14 년 오렌지 수확량, 기존의 최고치보다 약 31% 감소**
 - ※ 미국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농업통계위원회 발표 자료
 - ※ ※ 올해 생산량 1억1,000만 박스 전망, 1박스에는 약 50~60개
- **(오렌지 주스 가격 2년 만에 최고치)** 병충해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올해 플로리다주* 오렌지 수확량 30년 만에 최저치 기록 예상
 - ※ 미국 오렌지 수확량의 3/4 차지, 오렌지 생산지역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확량에 따라 국제 오렌지 가격에 영향

- **[브라질, 심각한 가뭄으로 오렌지 수확량 감소]** 세계에서 오렌지 수출량이 가장 많은 브라질도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오렌지 수확량 감소 우려, 월스트리트저널(WSJ, 4.11일 보도)

- **(오렌지 주스 가격 상승 전망)** 오렌지 주스 가격 국제 시장에서도 오를 전망

자료 : 그린경제(2014.4.11.) / 농민신문·파이낸셜뉴스(2014.4.14.)

한국 FTA 10년, 포도주 ↑, 위스키 ↓

- **[포도주 수입 3.8배 ↑, 위스키 수입 0.7배 ↓]** 한·칠레 FTA 발효 이전인 '03년 대비 포도주 3.8배 증가(1억7,200만 달러), 위스키 0.7배 감소(1억8,500만 달러)
 - ※ 관세청(4.16일), FTA와 관련 수입비율 높은 와인과 위스키의 '13년 수입동향분석결과

- **[국별 포도주 수입]** 가장 많이 수입된 국가는 프랑스*로 전체 수입액 중 31% 차지, 칠레(21.2%), 이탈리아(16.6%), 스페인(8%) 순
 - ※ '03년 프랑스가 금액·무게에서 으뜸이었으나 '13년 금액 면에선 1위, 무게에선 칠레·스페인·이탈리아에 이어 4위
- **(칠레산 포도주, FTA 효과 가장 커)** '03년 경우 무게기준으로 7위였으나 FTA 발효 후 수입 크게 증가해 '08년부터 1위 이어와 FTA 조기체결에 따른 시장선점효과
- **[국별 위스키 수입]** 수입액의 96%가 영국에서 수입, 미국산은 3%에 불과
 - 자료 : 문화일보·SBS CNBC(2014.4.16.) / 경향신문·news1·NEWSis·서울경제·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2014.4.17.)
 - 참고 : 관세청 보도자료_「통계로 보는 자유무역협정(FTA) 10년(포도주, 위스키 편) - 포도주 수입은 3.8배 증가, 위스키 수입은 0.7배 감소 -」(2014.4.16.)

TPP 참여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과 제2차 예비 양자협의 실시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제2차 예비 양자협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싱가포르(4.17일), 말레이시아(4.18일) 각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위한 제2차 예비 양자협의 실시
 - ※ 앞서 미국·캐나다(4.3일), 페루(4.8일), 칠레(4.10일) 협의 마친 상황
- **[향후계획]** 4월 개최된 제2차 예비 양자협의 주요 결과는 추후 대외적 공개
 - 자료 : SBS·YTN(2014.4.15.) / NEWSis·아시아경제·연합뉴스·이투데이(2014.4.16.)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과의 제2차 예비 양자협의 실시」(2014.4.15.)

정부, 쌀 시장 개방 여부 통보 전 국회 동의 절차 결정

- **[쌀 시장 개방 여부 통보 전 국회보고 및 동의]** 정부, '14.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개방 여부 통보 전 관세율 등 핵심사안* 국회 보고, 동의절차 밝기로 결정
 - ※ WTO에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
- **(의미)** 현행협상 통상업무 하면서 국회 사전 동의 규정은 없지만 쌀 관세율 일정상 국회 비준이 큰 의미가 없으며, 국회 허락 아닌 공감대 형성 위한 절차
- **[쌀 시장 개방(관세화) 절차]** (정부) WTO에 수정 양허표 제출 → (WTO) 제출한 양허표에 대해 회원국 동의 절차 착수 → (WTO) 사무총장 명의의 인증 서류 한국 정부에 전달 → 국회 비준동의권*
 -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권 받아야 함.

농정이슈

- **[WTO에 수정 양허표 제출하면 관세화 유예기간 끝나자마자 쌀 시장 개방]** 쌀 시장 개방 관련 WTO 인증 받는데 걸리는 소요기간 알 수 없고*, WTO에 쌀 시장 개방 의사 전달하면 국회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유예기간 끝나는 '15.1.1일부터 쌀 시장 개방
※ (일본) 2년 (대만) 5년

자료 : 국회뉴스문화일보세계일보아주경제연합뉴스YTN(2014.4.16.) / 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 아시아투데이아이투데이조선일보파이낸셜신문파이낸셜투데이해럴드경제(2014.4.17.)

미국 쇠고기 값 1987년 이후 최고 수준

- **[미국, 쇠고기 값 '87년 이후 27년 만에 최고치]** 가뭄에 따른 소 사육 감소, 중국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 요구 급증, 당분간 쇠고기 값 폭등과 공급 부족 지속 전망, AP통신 보도(4.12일)
※ 소 주산지인 미국 남서부·중서부 지역에 수년째 가뭄 이어져 소 사육용 작물 수확 감소해 소 사육두수는 1951년 수준으로 급감
- **(미국 소비자 소비형태 및 현지 식당 판매 전략 전환)** 쇠고기값 상승으로 미국 소비자들 쇠고기 대신 닭고기·돼지고기 소비, 식당들도 쇠고기 메뉴 가격 인상 외에도 다양한 판매 전략 시도
※ 텍사스주는 원래 소의 다양한 부위를 이용한 스테이크와 바비큐로 유명하지만 쇠고기값 상승으로 돼지 바비큐 대체

자료 : YTN연합뉴스(2014.4.12.) / 연합뉴스KBS(2014.4.13.) / 서울경제이투데이(2014.4.14.) / news1·조선일보(2014.4.15.)

수입쌀 부정유통, 국산·수입쌀 혼합금지 강화 필요

- **[국회 국산·수입쌀 혼합금지 움직임 본격화]** 국내 쌀 산업 보호, 건전한 양곡유통 질서 확립 위해 “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4.14일)
※ 현재 우리나라 국회, 혼합쌀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이력 추적관리 대상에 쌀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각각 발의
- **[한국, 국산·수입쌀 혼합금지 강화로 부정 유통 근절]** 수입쌀 부정유통 증가로 국산 쌀값 하락, 국산 쌀 이미지 추락, 쌀농가 소득감소의 부정적 결과 초래
※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건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 33건 → ('11) 148 → ('13) 319
- **[대안제시]** 혼합판매금지, 이력추적제, 유통이력제, 수입쌀 재포장금지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쌀 혼합유통 법적 근거 및 유통단계부터 이력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자료 : NEWSis아시아일보(2014.4.15.) / 한국농어민신문(2014.4.17.) / 한국농업신문(2014.4.18.)

농정이슈

〈대만 ‘혼합쌀 판매 금지’ 추진〉

- **[대만, 혼합쌀 시중판매 금지 법안 추진]** 최근 대만 정부, 혼합쌀 부정유통으로 인해 혼합쌀 시중판매 금지하는 내용의 ‘양식관리법 개정안’ 제출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조만간 통과될 듯, 대만의 대형마트들은 관련 법안 국회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혼합쌀 판매 중지한 상태
- **(목적)** 베트남산 등 수입쌀을 대만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혼합쌀의 혼합비율을 속이는 사례가 빈번해지며 사회 문제화, 원산지 상관없이 혼입행위 원천 차단
※ (개정안 주요내용) ▲시판용 쌀에 대한 혼입 전면 금지, ▲쌀수입업자 등 식품 취급업자들이 부정 표시했을 경우 처벌 강화, ▲쌀 구입처와 판매처에 대한 식품 취급업자의 정부 보고 의무화, ▲혼합쌀은 대형소비자(가공업자) 등이 계약서에 근거해 구매 요청할 경우 제한적 허용

자료 : 농민신문(2014.4.16.)

중국산 농산물 보따리상 대책 마련 시급

- **[중국산 농산물 보따리상 대책 마련 시급]** 소규모 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이 협동 조합 결성해 중국에서 휴대품으로 들여온 농산물을 5월부터 공식 판매하겠다고 나서 파장 예상

• **보따리상**: '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파동 때 생겨났지만 실제 보따리상은 '88년 중국 재외동포 입국 허용 이후 이들이 보따리 단위로 중국산 농산물을 반입하면서 비롯됨.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실직자들의 일자리 창출 수단의 하나로 대중국 보따리 무역 권장
- **[기업화예대 중국 보따리상 가세]** 수집상 중심으로 한 보따리상 기업화·대형화, 중국인 보따리상 급증
 - ※ 세관당국과 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은 4,000~5,000여명, 선국 내 수집상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비를 받고 평택과 인천·군산항 등을 오가며 농산물을 들여오고 있으며 한번 오가는 보따리상은 300~800명 선
- **[자가소비 아닌 수집상들에 의한 수집·유통 여진]** 통관 마치고자마자 현지 수집상들에 의해 수집·유통, 보따리상 통해 들어온 중국산 농산물은 시장 교란, 원산지 및 안전성 문제 등 논란 야기
- **(관세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상행위는 진행형)** 보따리상 반입한 농산물을 수집상에게 넘길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위반, 수집상이 이를 받아 판매·유통할 경우 관세법 제274조 밀수품 취득죄가 적용되지만 보따리상 ‘상행위’는 20년 넘게 진행형
 - ※ 중국 세관, '12년부터 보따리상들의 대중국 공산품 반입 전면 중단

농정이슈

- **[농민단체 입장]** 면세로 들어온 농산물 판매는 명백한 관세법 위반*,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 대응책 마련 강조
 - ※ 기획재정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의거, 여행객 1명 당 50kg 이내, 총 구입금액 10만 원 이내인 경우 면세 통관
- **[국회, 중국산 농산물 보파리상 대책 촉구]** 김영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4.14일)에서 “중국산 보파리상이 자가소비용으로 가져온 뒤 시중 유통되는 농산물 수 만 톤”, “1인당 50kg 반입량 대폭 제한” 대책 촉구

자료 : 농민신문(2014.4.11./4.14./4.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배추김치 원산지 단속 강화

- **[배추김치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 추진]** 농관원, 배추무 등 채소 값 폭락에도 김치 수입량은 평년과 비슷하여 국산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 등에 배추김치 원산지 특별단속 추진
 - ※ (단속방법) 수입 통관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경로 추적·조사, (단속기간) 2014. 4.9~4.30일, (단속대상) 수입업체·통신판매업체·대형유통업체 22,000여 개소
 - **(처벌강화)**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통해 무거운 처벌 받도록 할 예정
 - ※ (원산지 거짓 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 자료 : NEWSis-문화일보SBS CNBC-연합뉴스이데일리(2014.4.15.) / 아시아투데이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2014.4.16.) / 농축유통신문(2014.4.18.)
- 참고 : 농식품부 보도참고자료_「배추김치 원산지 위반행위 대대적인 특별단속 - 수입업체·통신판매업체·제조업체·대형음식점 등 집중단속 -」(2014.4.15.)

서울 가락시장 출하 전 잔류농약 '정밀검사'로 개선

- **[잔류 농약 검사 방식, '속성검사' → '정밀검사' 변경]**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농산물이 가락시장에서 출하되기 전 시행하던 잔류 농약 검사 방식 '속성검사' → '정밀검사' 개선
 - ※ (현행-속성검사) 31종의 농약만 검출 → (개선-정밀검사) 살균제, 제초제, 신규 농약 등 총 245종의 농약 성분 걸러내고 농도 확인 가능
- **[목적]** 출하 전 정밀검사 개선으로 **가락시장 유통 농산물 안전성 강화, 생산자 출하 후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출하제한폐기처분 **손실 사전 예방**
 - ※ 속성검사로 잡히지 않는 농약 사용량 증가하면서 검사 효율성 한계

농정이슈

- **[향후계획]** 소요시간(1시간)·인력 고려해 연간 약 200여 건 우선 실시, 향후 출하자 반응에 따라 서비스 확대 검토

자료 : 농민신문-KBSYTN-한국경제TV-헤럴드경제(2014.4.14.) / news1-뉴스웨이브NEWSis-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아이투데이연합뉴스(2014.4.15.)

농식품부, 봄꽃 있는 농촌체험마을 10곳 선정

- **[봄꽃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10곳 선정·발표]**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봄꽃과 농촌체험이 잘 어울리는 명소 10개소 선정
- **[향후계획]** 계절별 테마 있는 **농촌체험 명소마을 선정**하여 **농촌관광 떠나는 도시민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
 - ※ (4월) '봄꽃' → (5월) '가족' → (6월) '여름휴가' → (8월) '물·계곡'

봄꽃이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연번	봄꽃이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비고
1	새하얀 배꽃이 흩날리는 「양평 가루매마을」	배꽃축제(4월 3주~4주)
2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강릉 복사꽃마을」	복사꽃축제(4.19~20)
3	벚꽃과 유채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삼척 맹방유채꽃마을」	벚꽃길하이킹 행사(4.12)
4	행복의 꽃말이 어울리는 「보은 하안면들레마을」	
5	아름다운 벚꽃길이 있는 「청양 칠갑산산꽃마을」	산꽃마을 축제(4월)
6	허브농장 뒤로 철쭉이 만개한 「남원 춘향허브마을」	바래봉철쭉제(4.27~5.26)
7	우리전통과 꽃이 어우러진 「영암 왕인촌마을」	백리벚꽃길(4월)
8	만리까지 자두꽃 향기가 넘치는 「김천 이화만리마을」	자두꽃축제(4.11~12)
9	달콤한 사과꽃 향기와 솔향기 모두 느낄 수 있는 「영주 솔향기마을」	사과꽃 축제(4월)
10	황홀한 금빛 물결의 유채꽃다랭이논이 장관인 「남해 두모마을」	

자료 : 농민신문-농수축산신문-농업인신문(2014.4.14.)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 '봄꽃이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 선정」(2014.4.10.)

WTO, 세계 무역 성장을 완만한 회복세 예상

- **[WTO, '13년 및 '14년(전망) 세계 교역 성장률 발표, 4.10일]** '13년 2.1%, '14년 기준 **4.5% → 4.7%* 상향 조정** '15년 5.3% 완만한 성장 달성 전망
 - ※ 전년(2.1%)대비 2배 이상, 미국 경기 회복이 동력을 얻고 EU도 회복세에 들어서는 등 호전된 경제 상황을 반영했으나 지난 20년간 평균값인 5.3%에 못 미치는 수준
 - ※ '13.9월 WTO는 '13년 및 '14년 성장률을 각각 2.3% 및 4.5% 전망
- **('13년 세계무역 성장률 부진 원인)**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불확실성과 EU 경기침체 영향, 유로존 실업률 문제(독일 제외)로 세계 무역 부진

☞ 농정이슈

- **(교역액 기준)** 세계 상품 수출 전년대비 2% 증가한 18조8,000억 달러
 - ※ 제조업 대부분 분야는 지난해 2분기 들어 완만한 성장세를 회복했으나, 철강 분야는 4분기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함.
- **(서비스)** 전년대비 6% 성장한 4조6,000억 달러로 상품서비스 교역 20% 차지
 - ※ (분야별) 보험, 컴퓨터·IT, 금융서비스 부문 성장 두드러졌으며, 건설 분야 전년대비 감소

Ⅰ 한국 교역 현황 Ⅰ

단위: 억 달러, %

구 분	수출(금액 / 총교역 대비 비중)		수입(금액 / 총교역 대비 비중)	
	전 세계 교역	EU내 교역 제외 시	전 세계 교역	EU내 교역 제외 시
상 품 교역	수출 7위 (5,600 / 3)	수출 5위 (5,600 / 3.7)	수입 9위 (5,160 / 2.7)	수입 6위 (5,160 / 3.4)
서비스 교역	수출 13위 (1,120 / 2.4)	수출 8위 (1,120 / 3.2)	수입 13위 (1,060 / 2.4)	수입 8위 (1,060 / 3.2)

주: 우리나라 교역순위는 전년과 동일

자료 : KBS·SBS CNBC·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한국경제TV·헤럴드경제(2014.4.15.) / news1·더데일리·머니투데이·세계일보·아시아경제·이데일리·중앙뉴스·파이낸셜뉴스(2014.4.16.)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_「WTO, 세계 무역 성장을 완만한 회복세 예상」(2014.4.15.)

☐ IPCC, 전세계 온실가스 2050년까지 40~70% 감축 권고

- **[‘3실무그룹 제5차 평가보고서’ 승인·발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4.6~12일간 열린 제39차 총회 개최, ‘제3실무그룹 제5차 평가보고서’ 승인·발표
 - (보고서 구성) 실무그룹(WG I, II, III) 보고서*와 1개 종합평가보고서(* 14.10월)
 - ※ WG I: 기후변화 과학적 근거(‘13.9월) → WG II: 기후변화 영향·적응 및 취약성(‘14.3월) → WG III: 기후변화 완화(‘14.4월)
-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2010년 대비 40~70% 감축 권고]**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 2℃로 억제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40~70% 감축, 온실가스 농도 430~480ppm 제시
 - ※ 지난 2010년 대비 (한국 포함된 아시아 지역) 30~50% 감축, (1990년 이전 OECD 회원국들을 가리키는 ‘OECD90’ 지역) 약 80~95% 감축
- **(최근 배출경향) ‘00~’ 10년 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전보다 급격히 증가, 추가적 감축 노력 없다면 2100년 지구 평균 온도 3~5℃ 상승** 예상
- **(2℃ 목표달성*)** 에너지공급에 있어서 저탄소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개선 시급

☞ 농정이슈

- ※ (2℃상승목표) 과학자들은 기온의 폭발적 상승을 막을 수 없는 티핑포인트를 산업화 이전 대비 약 2℃ 상승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16차 유엔기후변화총회(‘10, 칸쿤)에서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공동의 비전으로 삼을 것에 합의
- **(IPCC, 정책제시)** 자동차 이용 감소를 유도하는 도시계획, 냉난방 에너지 절감과 생활방식 개선, 산업 일선에서 원료 사용 절감 등
- **[정책적 시사점]**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2015년 타결 목표로 진행 중인 Post-2020 신기후체제에 대한 국제협상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 향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상당한 영향 예상
 - 자료 : SBS·YTN(2014.4.13.) / 경향신문·뉴스와이어·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리·중앙일보·한겨레·헤럴드경제(2014.4.14.)
 - 참고 : 기상청, 외교부, 환경부 보도자료_「205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40~70% 줄여야 -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21세기 기후변화 완화’분야 발표 -」(2014.4.13.)

<아시아 대기오염 심해져 태평양에 강력 태풍 유발>

-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대기오염, 북반구 지역 강력한 폭풍 유발]** 대기 오염으로 인해 밀도 높은 구름 형성으로 이어져 기존보다 강력한 폭우·폭풍 유발, 영국 BBC 보도(4.14일)
 - ※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최근 실린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제트추진연구소 논문 인용
 - **(대기 중 인공 입자 늘어나면 구름 두꺼워져 강수량 증가)** 작은 공해 입자들은 북 태평양 상공 날아가 대기 중 미세 물방울과 만나 상호작용해 구름을 더욱 짙게 만들고, 대양 위에 심한 폭풍 유발
 - ※ 컴퓨터 모델화 통해 아시아 대기오염이 기후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 ※ 대기오염 위험수위에 이른 중국·인도는 북반구 지역 기상이변에 원인 제공지역으로 지목
 - **[태평양 폭풍 지구 전체 기후 영향]** 아시아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 받는 태평양 폭풍 경로는 해당지역 벗어나 전 세계 기후에도 영향, 특히 겨울철 북미지역 심화
 - ※ 태평양 폭풍경로는 전 세계 대기대순환에서 중요한 요소, 아시아 공해가 폭풍의 진로에 영향, 겨울철 세계 다른 지역 기후에도 영향. 특히 북미 같은 순환의 하류에까지 영향
- 자료 : KBS(2014.4.15.) / 경향신문·NEWSis·세계일보·연합뉴스·YTN·헤럴드경제(2014.4.16.)

정책브리핑 농식품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4.17.)

☐ 농식품부,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 **[목적]** 농식품산업 발전 저해하는 규제 개선, 현장 애로사항 발굴·해소
- **[목표]** '14년 12% → '16년 20% 이상 규제 감축
 - ※ (농식품 분야 규제) 81개 법령, 행정규칙 940건
 - ※ 농업인 지원·농산물 안전·식품산업 육성·농촌지역개발·식량안보 등을 위한 규제 다수, 규제 분야 특성 다양
- **[전략]** △기존규제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 정비, △새로운 농식품산업 및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경제활동 지원 위해 여러 부처와 얹혀 있는 과제 중점 정비, △식량안보·공정거래·위생 및 안전·농업인 복지·농촌 환경보전 등 공익목적의 규제 품질 향상
 - ※ 공청회·인터넷 의견수렴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주요내용

- **핵심(당어리)규제 발굴 및 개선**
 - **(농식품 산업 규제 개선)** 먹거리·생활양식 변화, 기술발전으로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식품 산업의 형성에 발목 잡는 규제 개선
 - ※ 농식품산업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경제활동 저해하고, 농식품 기업인의 경영활동에 부담 주는 중복규제 과감하게 개혁, 지역개발과 귀농·귀촌의 편의성 도모
 - **(농지규제 합리화)** 농지는 식량안보를 위해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간척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 땅 등 활용가치가 낮은 농지 규제 합리화

〈검토과제〉

- 한약재 생산자 가공유통 진출허용, 식용곤충 식품원료 허용, 전통주시장 참여대상 확대, 농식품 부산물 (왕겨, 쌀겨 등) 사료비료로 재활용 절차 완화, 화훼 선물규제완화, 승마특구 완화 등
- 귀농귀촌자의 농식품 사업 참여요건 완화, 과도한 GAP기준 완화 등

○ 신설규제 관리 강화

-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농식품 관련 신기술·신시장·신산업 및 투자 저해하는 규제,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농식품 분야 규제를 비용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적극 검토

○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애로사항 해소

- **(규제개선 과제 효과적 발굴, 국민소통과 공감대 형성)** 국무조정실의 ‘규제 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건의과제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신속성실히 처리, 식품·외식, 농산물 유통 등 ‘분야별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 수시 개최
 - ※ 이 외에도 국민들의 참여 유도 위해 7월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 실시
- **(법률 서비스 확대)** 복잡한 법률 이해하기 어려워 창업 및 경영활동에서 애로 사항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직접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확대
 - ※ 농협,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법률 이동상담실’ 운영, 법조인들 농촌에서의 재능기부 활동 활성화, 농업인이 법률 관련 민원사항 제기하면 사안 성격에 따라 농식품부 자문번호사와 연계하여 법률서비스 지원

○ 규제개혁 지원체계 구축

- ※ 현재 운용 중인 농식품부의 규제심사위원회 확대·재편(현행 16명 → 20명 이상)
- ※ 위원회 산하에 농지, 식품산업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하여 규제신설 및 강화의 적정성, 규제영향평가에 관해 심층검토
- **(‘(가칭)농식품 규제영향평가센터’ 설치)** 농촌경제연구원에 ‘(가칭)농식품 규제영향평가센터’ 설치하여 규제비용총량제도 운용 지원
-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작업반’ 구성)**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4.4일부터 농식품부 중심으로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가, 농업계 참여해 활동 중

2014년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 추진

□ 2014년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 추진

- **[목적]** 축산농가의 부담경감과 경영안정 도모
- **[추진전략]** '13년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불법수령 등에 따른 축산농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변화 유도, 각종 재해나 사고로부터 농가보장 한층 강화

□ 주요내용

-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보장강화]** 소(젖소) 본질 용도에 맞는 보장 확대(각종 질병 등 손실 보전), 사고가축 도축운송비 등에 대한 '잔존물 처리비용' 보전
- **[보험료 조정 및 농가 편익증진]** 보험사업자 간 보험료를 적용 표준화(보험료를↓, 보장↑), 보험가입자 보험료 분납제도 도입 운영(2회 분납), 정부지원으로 인한 계약자 환급보험료 부담범위 구체화, 보험사업자 지연이자율 등 인상 적용*
※ 일반손해보험도 정기예금이율 대신 보험계약대출이율 적용(4.1일)
- **[가축재해보험 보험사고 관리 체계화]** 가축재해 '보험사고' 대비 상호협력 및 대응체계 구축*, 보험사고 대비 실태점검 강화(정기/2회, 특별/수시)
※ 보험사고 「위기관리시스템」, 「위험관리점검회의」 개최
- **[소 손해평가 전문성 및 심사 강화]** 모든 축종에 손해사정사가 손해평가, 이해관계인 참여배제, 보험금 지급심사 전 심사서류 등 적용기준 강화*
※ 16축종 중 소(牛)만 대리점 공제담당이 손해평가 실시('13년)

<가축재해보험 사업개요>

- (도입연도) 1997년
- (사업예산, 국비) 2014년 528억 원
- (지원금액) 가축재해보험료 50%-정부지원, 50%-자부담
- (보험 목적물)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사슴, 양, 벌 등) 및 축산시설물(부대시설 포함)
- (보험대상 재해) 자연재해(풍수해), 질병 또는 화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4.17.)

연구지원 201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14.4.17.)

□ 개요 및 총괄

- **[조사표본]** '13.12.1일 기준으로 전국 농·림·어가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 (조사 기준시점 및 조사 기간) '13.12.1. 0시 현재, '13.12.1.~20.(20일간)
- **[조사 대상]** 201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이용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 내의 조사기준시점 현재 모든 농가, 임가, 어가
※ 농가 72,020 가구, 임가 5,256 가구, 어가 7,464 가구
- **[농·림·어가 규모]** 농가 114만2천 가구, 임가 9만5천 가구, 어가 6만 가구(내수면 제외)
※ 전년대비 각각 0.8%, 2.6%, 1.9% 감소
- **[농·림·어가 인구]** 농가 284만7천 명, 임가 23만6천 명, 어가 14만7천 명(내수면 제외)
※ 전년대비 각각 2.2%, 4.9%, 3.8% 감소
- **[농·림·어가 인구 고령화]** 농가 37.3%, 임가 36.9%, 어가 29.9% **전체 인구 고령화(12.2%)보다 빠르게 진행**
※ 전년대비 각각 1.7%p, 2.8%p, 2.4%p, 증가

□ 농업·어업·임업 부문

<농업부문>

- **[농가규모 및 인구]** 농가 114만2천 가구, 농가인구 284만7천 명
※ 전년대비 각각 0.8%↓, 2.2%↓
- **[농가분포]** 경북(19만5천 가구, 17.1%) > 전남(16만5천, 14.4) > 충남(14만4천, 12.6) 순
- **[전업·겸업농가]** 전업농가 60만7천 가구(53.2%), 겸업농가 53만5천 가구(46.8%)
※ 전년대비 각각 2.9%↓, 1.7%↑

- **전업:** 농업(임업, 어업)에만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임가, 어가)와 농업(임업, 어업) 이외의 돈벌이 또는 영업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더라도 연간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임가, 어가)
- **겸업:** 돈벌이를 위하여 농업(임업, 어업) 이외의 일 또는 영업에 연간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임가, 어가)

- **[농가경영주]** 70세 이상(43만 가구, 37.7%) > 60대(33만8천, 29.6%) > 50대(26만7천, 23.4%) 순, 평균연령 65.4세

연구지원

- **[경지규모]** 1.0ha 미만 74만4천 가구(전체 농가의 65.2%), 3.0ha 미만 103만3천 가구(90.5%)*, 3.0ha 이상 9만9천 가구(8.7%)
※ 전년대비 0.7% ↓
- **(영농형태별)** 논벼(41.7%) > 채소·산나물(23.7%) > 과수(15.4%) > 식량작물(8.7%) 순
※ 전년대비 식량작물(10.8%), 과수(1.3%), 축산(0.5%) 농가 증가 / 논벼(-3.7%), 화초·관상작물(-7.9%) 농가 감소
- **(시도별)** 논벼농가 충남(16.8%), 채소·산나물 전남(17.5%), 과수 경북(31.9%) 가장 많이 분포
※ 식량작물 농가 강원(17.7%), 축산 경북(20.3%), 화초·관상작물 경기(21.9%) 가장 많이 분포
- **[농축산물 판매금액]** 1억 원 이상 3만2천 가구(전체 농가의 2.8%), 1천 만 원 미만 72만5천 가구(63.5%)
※ 전년대비 판매금액 1억 원 이상인 농가 8.1% ↑, 5천~1억 원 농가 5.8% ↑
※ 5천만 원 미만 구간에선 논벼, 5천~1억 원 채소·산나물, 1억 원 이상 축산 농가가 가장 많이 분포
- **[농축산물 판매처]** 농협·농업법인(32.4%) > 소비자 직접판매(22.4%) > 수집상(12.0%) 순
※ 전년대비 농축산물 가공업체 17.6% ↑, 친환경 농산물유통업체 9.8% ↑, 소비자 직접판매 6.0% ↑

<임업부문>

- **[임가규모 및 인구]** 임가 9만5천 가구, 임가인구 23만6천가구
※ 전년대비 각각 2.6% ↓, 4.9% ↓
- **[경영형태]** 재배임업만 경영 8만8천 가구(91.7%), 비재배 및 재배임업 같이 경영 4천 가구(3.6%), 비재배임업만 경영 4천 가구(4.7%)
※ 전년대비 비재배임업만 경영하는 가구 37.5% ↓, 이 중 채취업 임가 51.9% ↓
- **[생산형태]** 비재배업 임가는 채취업(5.6%) > 육림업(5.0%) 순
- **(채취 품목별)** 송이버섯 채취 가구 비율 51.2%로 가장 높고, 다음이 수액류(24.4%), 고사리(20.5%) 순

<어업부문(해수면)>

- **[어가규모 및 인구]** 어가 6만 가구, 어가인구 14만7천 명
※ 전년대비 각각 1.9% ↓, 3.8% ↓
- **[어가분포]** 전남(2만2천 가구, 36.0%) > 충남(9천4백, 15.6) > 경남(9천3백, 15.5) 순
※ 전년대비 어가 감소를 높은 시·도: 부산(-6.2%) > 인천(-5.9%) > 제주(-5.8%) 순

연구지원

2014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총괄

- **[조사목적]** 가축 사육규모별 가구수와 연령 및 성별 마릿수 파악하여 축산정책 수립과 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전국 3,068개 표본조사구와 시도별·축종별 일정 규모이상 가축사육 농가
※ (조사기준 및 조사기간) 2014.3.1.(조사기간: 2014.3.1~18)
- **[' 14년 1/4분기 가축사육마릿수]** 전분기대비 한·육우·돼지·산란계·오리 감소, 육계 증가

2014년 1/4분기 축종별 현황(사육마릿수)

- **[한·육우]** 전분기대비 3.7% ↓, 전년 동기대비 5.2% ↓
- **(원인)** 설명절에 따른 도축 증가
※ 도축마릿수(농림축산검역본부): ('12.12~'13.2월) 271 천 마리 → ('13.9~11) 269 → ('13.12~'14.2) 279
- **[젖소]** 전분기대비 0.9% ↑, 전년 동기대비 1.9% 증가
- **(원인)** 지속적인 원유 수취가격 호조에 따른 도태지연
※ 원유수취가격(낙농진흥회): ('13.3월) 987원/ℓ → ('13.9) 1,071 → ('13.12) 1,097 → ('14.2) 1,096
※ 2세 이상 마릿수: ('13.3월) 261천 마리 → ('13.9) 261 → ('13.12) 260 → ('14.3) 266
- **[돼지]** 전분기대비 2.2% ↓, 전년 동기대비 4.0% ↓
- **(원인)** 분만 모든 감소에 따른 생산 감소 및 질병(PED) 발생에 따른 폐사 증가
※ 분만 모든수: ('13.3월) 474천 마리 → ('13.9) 469 → ('13.12) 453 → ('14.3) 450
※ 생산 마릿수: ('13.3월) 4,989천 마리 → ('13.9) 5,067 → ('13.12) 4,800 → ('14.3) 4,783
※ 폐사 마릿수: ('13.3월) 493천 마리 → ('13.9) 514 → ('13.12) 487 → ('14.3) 560
- **[산란계]** 전분기대비 0.4% ↓, 전년 동기대비 9.9% ↑
- **(원인)** AI 발생에 따른 폐사 증가로 전분기대비 감소, 전년대비 증가는 계란 산지가격호조에 따른 입식 증가
※ AI 닭 살처분 현황(228현재, 농림축산식품부): 383만 5천 마리(산란계, 육계, 종계 포함)
※ 계란 산지가격(특란 10개): ('13.3월) 1,119원 → ('13.12) 1,436 → ('14.1) 1,483 → ('14.2) 1,299
- **[육계]** 전분기대비 1.8% ↑, 전년 동기대비 8.3% ↑
- **(원인)** 지난해 지속적인 가격호조에 따른 입식증가 및 AI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출하 지연

연구지원

- ※ 평균 육계가격(농협중앙회): ('12년) 1,693원 → ('13년) 1,839 → ('14.1~2월) 1,531
- ※ 사육가구수: ('12.12월) 1,571가구 → ('13.3) 1,446 → ('13.12) 1,565 → ('14.3) 1,584
- ※ 1개월 이상 마릿수: ('13.3월) 1,215만 마리 → ('13.9) 1,133 → ('13.12) 1,265 → ('14.3) 1,583

○ [오리] 전분기대비 39.7%↓, 전년 동기대비 41.3%↓

- (원인) AI 발생으로 인한 폐사 증가 및 입식지연
 - ※ AI 오리 살처분 현황(228일 현재, 농식품부): 231만 2천 마리(종오리, 육용오리 포함)
 - ※ 새끼오리생산마릿수(오리협회): ('13.1~2월) 10,845천 마리 → ('13.10~11) 11,799 → ('14.1~2) 8,209

가축사육마릿수 총괄표

단위: 천 마리, 천 가구, %

구	분	' 11.12	' 12.12	2013				2014	증 감	
				3월	6월	9월	12월	3월	전분기	전년동기
소	총 마릿수	3,354	3,479	3,386	3,483	3,465	3,342	3,239	-103(-3.1)	-147(-4.3)
	- 한육우	2,950	3,059	2,966	3,064	3,043	2,918	2,811	-107(-3.7)	-155(-5.2)
	· 한우	2,820	2,933	2,848	2,949	2,931	2,810	2,711	-99(-3.5)	-137(-4.8)
	· 가임암소	1,249	1,232	1,200	1,244	1,234	1,166	1,141	-25(-2.1)	-59(-4.9)
	- 젖 소	404	420	420	419	422	424	428	4(0.9)	8(1.9)
	· 가임암소	283	299	301	301	304	304	307	3(1.0)	6(2.0)
	사육 가구수	169	153	148	143	138	130	124	-6(-4.6)	-24(-16.2)
	- 한육우	163	147	142	137	132	124	119	-5(-4.0)	-23(-16.2)
	· 한우	158	141	137	132	127	119	114	-5(-4.2)	-23(-16.8)
	- 젖 소	6.1	6.0	6.0	5.9	5.9	5.8	5.9	0.1(1.7)	-0.1(-1.7)
돼	총 마릿수	8,171	9,916	10,107	10,181	10,188	9,912	9,698	-214(-2.2)	-409(-4.0)
지	- 모돈	903	962	973	952	897	895	910	15(1.7)	-63(-6.5)
	사육 가구수	6.3	6.0	6.1	6.1	5.9	5.6	5.4	-0.2(-3.6)	-0.7(-11.5)
	총 마릿수	149,511	146,836	139,732	167,743	136,721	151,337	151,838	501(0.3)	12,106(8.7)
닭	- 산란계	62,425	61,344	58,746	61,927	62,674	64,824	64,572	-252(-0.4)	5,826(9.9)
	- 육계	76,435	76,130	71,938	95,898	64,505	76,487	77,879	1,392(1.8)	5,941(8.3)
	- 종계	10,652	9,362	9,048	9,918	9,542	10,026	9,386	-640(-6.4)	338(3.7)
	사육 가구수	3,403	3,144	2,955	3,500	2,958	3,087	3,044	-43(-1.4)	89(3.0)
오리	총 마릿수	12,735	11,161	11,207	13,287	12,246	10,899	6,577	-4,322(-39.7)	-4,630(-41.3)
	- 종오리	1,527	1,231	1,170	1,368	1,143	1,064	692	-372(-35.0)	-478(-40.9)
	- 육용오리	11,209	9,930	10,037	11,920	11,103	9,835	5,885	-3,950(-40.2)	-4,152(-41.4)
	사육 가구수	981	852	845	979	929	866	515	-351(-40.5)	-330(-39.1)

주: (가구당 사육마릿수) 한 육우 23.7마리, 젖소 72.9, 돼지 1,782, 닭 49,881, 오리 12,772

자료 : 통계청(2014.4.11.)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